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 경기전망과 통계의 함수 관계

통계 수치대로 경기가 같은 맥락의 흐름을 탄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것이 수월하게 될까, 아니면 더 어렵게 될까? 항상 궁금한 대목이다.

지난해 말 양계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진단했던 경기전망을 다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결국 실물경기와 경기전망은 통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종계분양이 많았던 2005년의 통계와는 달리 2006년의 병아리값과 닭 값은 기대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통계에 기초한 경기 전망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고 말았다.

최근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유를 굳이 분석해 본다면, 첫째는 2005년도의 종계판매수수는 사상 가장 많은 수수에 이른다. 종계의 분양은 6개월 뒤에는 육계병아리의 생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많이 판매된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생산수수의 조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계가 발표된 후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여 자율적으로 감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는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종계에 있어서 면역억제성 질병과 호흡기질환들이 종계 자체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육계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공급부족현상을 부른 것이 아닌가 싶다.

셋째는 계열화 사업이 팽창되면서 부화장과 계열업체간의 병아리 공급계약과 계열업체와 닭고기 구매업체간의 계약이 자연스런 시장의 왜곡을 일으킨 것이 아닌지.

넷째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열 업체들에 의한 계열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사업계획 확장(시장점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계열화의 증대로 계약에 의한 안정적 공급을 하다 보니 비수기가 없어지고 생산이 줄어드는 비수기가 오히려 수요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계열화 업체들의 경쟁적인 시장 확대 계획이 병아리 공급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견해들이다.

다섯째는 닭고기 소비의 증가인 듯 싶다. 최근 시중경기의 불황으로 닭고기 소비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비싼 나머지 닭고기로의 대체효과도 있는 듯 하다.

결과적으로 생물의 닭 값과 병아리 가격은 순수한 통계숫자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통계가 발표되면 이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통계수치는 어느 누구 혼자만 알고 있다면 정확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만인이 공유하게 된다면 결국 굴곡이 메워지는 현상이 초래되어 기대효과는 저하되므로 차라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다.

올 여름은 초기에는 폭우로 인해 동해안과 중북부 일부지역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8월 초부터는 예상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어 예년과는 다르게 해수욕장의 폐장이 늦춰지는 일도 있었다. 장마가 일찍 시작될 때만 해도 더위가 짧아 닭고기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가 되었지만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장마 뒤의 불볕더위는 마치 한여름의 더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어느 여름보다 강렬하여 육계의 생산성 저하와 닭고기의 소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것이 대개의 생각들이다. 이렇듯 날씨가 때에 따라서는 생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해 오고 있다.

양계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통계가 맞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금년 1월 통계에 기초하여 올해 경기전망을 했을 때 대개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사실 통계와 가격은 상관관계가 없을까? 분명 상관관계는 존재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에 의하여 조절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분명 첨단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것에 스피드를 요하고 남들보다 한발 빨리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양계산업에 있어서의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는 빨리 돈(가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남들보다 한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통계는 흐름을 계수로 나타내주는 것일 뿐 통계 자체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